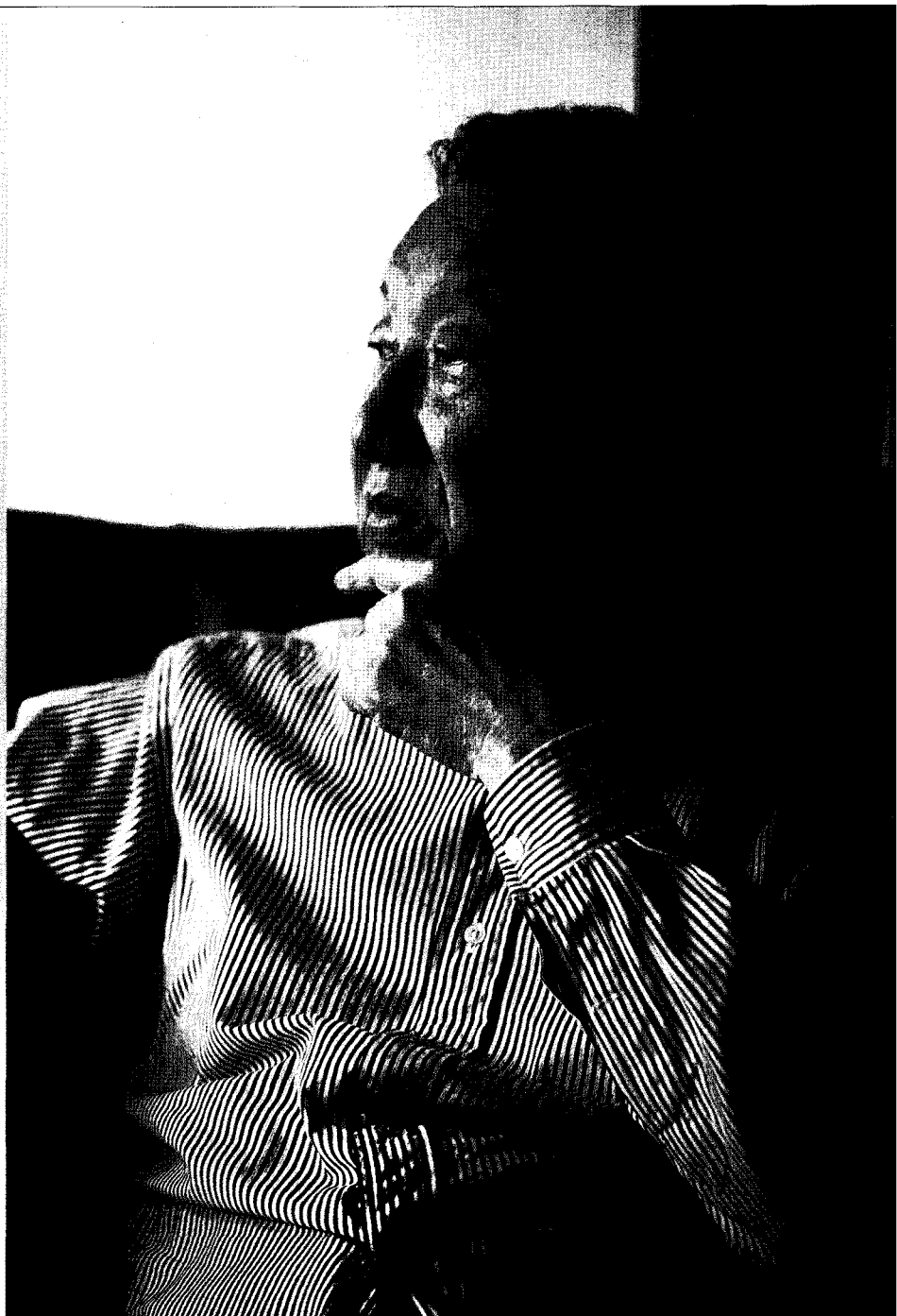


여든이 넘어도 현역보다 더 정열적으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한적한 전원주택 단지에 터를 잡고 저서 40권을 채우기 위해 분주하다. 과학저술가이자 저널리스트 현원복(81)씨가 그다. 지금까지 38권의 과학 교양서, 한국 과학자 인물 백과 등을 펴냈고, 지금도 노벨상 관련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1세대 과학기사이자 과학저술가인 그를 용인의 자택에서 만났다.

글_ 박병주 중앙일보 과학전문기자 bpark@joongang.co.kr



한국 1세대 과학저술가 '현원복'

통신사 기자로 언론계에 발 디뎠다

지금까지 몇 권의 책을 냈나? ▶▶ 40권을 채우는 게 목표다. 지금 38권이 나왔다.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진도가 안 나간다. 자료를 구하는데 국립도서관에도 별로 없어 애를 먹고 있다. 딸이 미국 뉴저지에 있는데 책을 구하러 한 번 가려고 한다. 뉴욕에는 오래된 서점들이 많다. 뉴저지에서 가까워 가기도 편하다.

지난해 네 권짜리 책을 내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책을 낸지 한 1년 되니까 생각이 달라졌다. 여기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다. 텃밭 일구기도 하는데 힘이 부친다. 할머니(부인을 일컫는 말)가 농사지를 뽐 나는 안 한다. 근처에 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너무 심심해서 또 하나 계획을 세우게 됐다. 노벨상 관련 책을 써보려고 그러는데, 국립도서관에 가서 찾아봐도 자료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결국 뉴욕에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사위가 템플대학의 교수이다.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한 달 정도 와서 있으라고 그랬다. 몇 년 전에도 거기에서 한 달 있었는데 너무 심심해 글만 썼다. 글 쓰는 게 버릇이 돼서 그런 것 같다.

뉴욕 책방에 직접 들러 자료를 찾는가? ▶▶ 1967년 쯤 뉴욕에서 한 1년 살았다. 서울에서 아시아재단 장학금 받아서 갔다. 그래서 뉴욕 지리는 조금 안다. 몇 십 년 후에 가보니까 눈에 익은 데가 많았다. 책방은 내가 좀 안다. 책방이 재밌는 게 책이 몇 만권씩 쌓여 있다. 그래서 한번 뒤져보고 싶은 것이다.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이공계출신이 그 당시 신문기자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 6.25 전쟁이 날 때 연희대학(연세대학) 생물과 2학년이었다. 그 때 전쟁이 2~3년 있으면 끝날 줄 알았고, 그러면 군대 생활도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도 제때에 전역을 시켜주지 않았다. 군에서는 연락장교를 했다. 그래서 미군하고 많이 접촉하고, 책도 그 사람들한테서 얻어 봤다. 제대하고 나니 집도 없고, 학교를 다니려고 해도 돈을 대줄 사람도 없어서 취직을 했다. 당시 공채하는 곳은 신문사와 은행 밖에 없었다. 그때 세계통신이란 통신사에 시험을 봐 합격했다. 통신사에서 근무는 7년을 했다. 통신사에서 번역을 하는데 간부였던 박현무 씨가 '당신 이력서보니까 이공계 다니는 걸로 되어있으니, 과학을 맡으라고 했다. 마침 옛 소련의 위성 스푸



트니크호 발사 등 우주경쟁이 달아올랐다. 각 언론사가 과학 외신 보도 경쟁이 벌어졌다.

그 일을 한 것이 서울신문으로 가게 된 계기였다. 서울신문에서 과학부를 설치하는데 조용준 편집국장이 일해보자고 제의했다. 그래서 1965년에 서울신문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과학 보도란 것이 이벤트가 있어야 독자가 생기는 것 아닌가. 그때 내가 큰 취재거리를 하나 만들었다. 휴전 후 13년이 지난 DMZ 생태계 탐사였다. 생물학계의 교수들이 대거 갔다. 서울신문은 100만 원쯤 비용을 낸 것 같다. 그런 이벤트를 해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등 몇 년 동안 열심히 과학기자를 했다. 그러자 아시아재단에서 아주 좋은 조건의 장학금을 대줬다. 전액 장학금에 학교(콜롬비아대)도 좋고, 생활비도 신문사에서 특과원 명목으로 냈다.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 몇 개 신문사 밖에 특과원 못 보낼 때이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정도였다. 콜롬비아대 저널리즘 대학원에서 과학부 전공으로 한 1년 있었다. 그 과정을 끝내고 다시 돌아왔지만 우주 이벤트가 거의 없다보니 과학보도가 시들해졌다. 신문사에서는 그때 한창 경제가 어려우니까 과학부를 없앴다.

그래서 신문사를 나오게 됐다. 다시 미국에 가려고 했었다. 콜롬비아에 있을 때 캐나다에서 기자하던 사람이 신문 교정하는 일이 있다고 하며 오라고 해서 그리로 갈까 고민했다. 그러다 돌아가신 최형섭 과기부 장관을 만났는데 '당신 가긴 어딜 가나, 여기 있어야지'하며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줬다. 한국과학연구단지를 만드는 데, 그곳의 소식지 제작을 맡으라고 해서 남게 됐다.

한국인 과학자 1만명 업적 실은 책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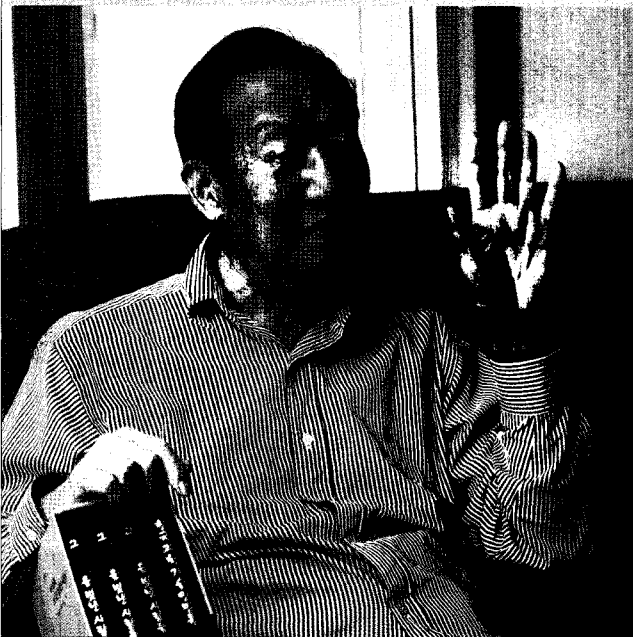
그 곳에 얼마나 근무했나? ▶▶ 한 15년 된다. 신문기자 하다가 과

기부의 지원을 받아 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만 두고 독립을 했다. 서울 서초동에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거기서 글 장사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신 것인가? ▶▶ 그렇다. 전업 작가가 된 것이다. 마침 그 시대가 회사들이 발행하는 사보가 우후죽순으로 생길 때이다. 사보마다 과학 칼럼을 하나씩 실었다. 그런데 별로 쓰는 사람이 없으니깐 나한테 물렸다. 당시 아이들이 의대와 음대를 다니고 있었어도 돈 걱정은 안했을 정도였다.

전업 작가로서는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작은 소기업 사장보다 나은 수입이었다. 한 10년 동안 아주 전성시대였다.

그게 몇 년대인가? ▶▶ 1990년대이다. 그런데 사보가 줄어들더니 과학칼럼도 없어지더라. 2003년쯤 사무실을 접고, 집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기업의 문화재단이나 언론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책을 내곤 했다. 그러다가 이제 80이 되니까 글을 쓰기도 싫고, 애들도 이제 그만 두고 쉬라고 그런다. 그러나 쉬니까 또 너무 심심해 조금씩 쓰고 그런 거다. 그래서 지난해 '과학사랑'이라는 출판사를 통해 4권짜리 한국 과학자 인명 백과를 펴냈다.



책이름이 무엇인가? ▶▶ '우리과학 100년을 빛낸 사람들'이다. 1900년대부터 100년 동안 과학을 한 사람들 만 명을 추려서 업적을 실었다. 그런데 빠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말썽이 많았지만 하여간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어떻게 과학자들을 추렸나? ▶▶ 내가 추릴 수가 없어 단체에서 나온 책을 보고 열개를 잡았다. 인정할 만한 사람들을 다 추렸다. 과총과 같은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명록은 해마다 나오는 게 아니다. 몇년에 한 번씩 발행한다. 그런 것이 자료가 됐다. 또 일제 강점기 때 발간한 과학 인명록을 찾아냈다. 일본 사람이 1939년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인, 한국인 과학자들 연감을 만들었던 모양이다. 그걸 찾았는데 보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자료였다. 과학자들은 보통 직장을 잡으면 30~40년 동안 직장을 옮기지 않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연구소에서 일한 과학자들과 일제 강점기 때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1만2천명을 추리는데 4~5년 걸렸다. 책을 4권을 내는데 원고를 이메일로 보냈다. 원고를 편집하는 데만도 1년 가까이 걸렸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책이 나왔다. 책값을 20만원이나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잘 팔리지 않는다.

과학 관련 책 저술엔 자료가 가장 중요

과학기자로서 기억에 남는 취재 현장 얘기 하나만 해 달라. ▶▶ DMZ 조사를 꼽을 수 있다. 한국 생물학계의 학자들이 거의 다 참석했다. 60명 정도 됐다.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지 13년 만에 들어가 보니까 별천지였다. 서울대 농대의 강수원(작고) 교수가 웅덩이에 그물을 던진 적이 있다. 그 분이 그물을 던졌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줘, 도와줘'하는 거다. 고기가 하도 큰 게 걸려가지고 힘이 모자랐던 것이다. 메기가 걸렸는데 1m 정도 됐다.

그게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었나? ▶▶ 그렇다. 아시아의 과학연맹인가, 미국 특파원, 학자들이 그 사업을 인수해 몇 년을 더했다. 군사 지역이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그 당시 서울신문의 사장이 군에 입김이 좀 통했다. 그래서 가능했다. 조사 현장에 가니까 장성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사열까지 하도록 했다. 다른 신문사와 독자들도 관심이 많았고, 성과도 많이 났다.

과학 관련 책을 38권이나 낼 수 있는 비결 좀 알려 달라. ▶▶ 과학 관련 책을 쓰는 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료가 문제다. 자료를 어떻게 구하느냐, 정돈을 해두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가령 지금 책을 쓰려고 구상하고 있는 노벨상 관련 아이টে믈 예로 들자. 노벨상 관련 책이 국내에는 별로 없다. 원론에 가까운 것, 연구서 같은 것을 많이 준비해둬야 한다. 그리고 쓰고 싶은 책의 줄거리를 잡아야 한다. 자료로 모아 놓은 모든 책을 다 읽기도 쉽지 않다. 수백 권씩 읽을 수가 없어 대개 통독을 해 준비를 한다. 필력은 다 있으니까, 준비만 잘해놓으면 쉽다. 책 쓰는 기간을 1년으로 잡는다면 6개월은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책 쓰려고 하면 대개 근거 없는 얘길 많이 쓰는데, 반드시 어디서 인용했다는 걸 기억해두고 인용구를 달아야 한다.

38권의 책 중에 자랑할 만을 꼽는다면? ▶▶ 젊을 때는 그냥 급히 썼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좋은 책이라도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60세 이후부터 그렇다. 지난번에 했던 4권짜리 책도 그 중 하나다. 과학 언저리에서 50년 정도 생활하며 많은 과학자들을 만났다. 그 중에 돌아가셨지만 이름 석 자 남기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남겨주고 싶어 과학자인 명록을 쓰기 시작했다. 이 아이디어는 재작년 97세로 돌아가신 안동혁씨로부터 얻었다. 그 분이 환갑 때 잔상이란 회고록을 냈는데 그 회고록이 옛날에 자기가 만난 사람들, 과학자들에 관한 책이다. 경성 공대 교수 때부터 옛날 얘기, 일반사람 얘기도 많다. 그리고 87세가 되니까 또 못 쓴 것이 생각나서 '계상'이라는 책을 냈다.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난 그런 책을 낼 수도 없고, 그 대신 그 사람처럼 '내가 알고 있던 과학자들 얘기를 남겨두자'라는 생각에 '우리 과학 그 100년을 빛낸 사람들'을 썼다.

과학을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찾아야

많은 과학자들을 만났는데 특히 친분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 재미과학자 김완희 박사이다. 그 분이 내가 미국 가서 있을 때 공대 교수로 신진이었다. 나보다 대여섯 살 위이지만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했다. 나중에 한국에 나와서 박정희 대통령 고문도 했다. 그 당시 김 박사하고 굉장히 가까워졌고 해외여행도 같이 다녔다. 그 분이 노벨상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나는 열심히 하면 노벨상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

는데, 그 분은 다르게 생각했다. 노벨상을 탈만큼 똑똑한 사람은 수없이 많으며, 첫째 운이요, 둘째가 선생이요, 셋째가 나라가 부자여야 한다고 했다. 노벨상 탄 사람 밑에서 공부해야 무엇을 연구하면 노벨상을 탈지 안다는 의미이고,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형섭 장관도 대단한 분이였다. 돌아가시기 전에 중국집에 가면 반드시 마늘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친다. 마늘을 많이 먹어야 오래 산다고 그랬다. 그 분이 무술도 잘해서 오래 살 줄 알았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연구단지에서는 어떤 직책을 맡았는가? ▶▶ 한 15년 근무했다. 편집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니 내가 별로 할 일이 없었다. 그냥 원고를 가져와 추린 뒤 머리기사 될 만한 것을 편집자에게 알려줬다. 20페이지 정도 두께였다. 그런데 어떤 장관이 부임해서 과학천으로 와서 과기부를 홍보하라고 했는데 그게 싫어 그만뒀다.



과학기자들이 옛날과는 일하는 방식이 많이 다른 것 같다. ▶▶ 요새는 내가 과학기자를 할 때보다 많이 다르다. 미디어도 새로운 게 많이 나와서 그때하고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과거처럼 해서는 과학전달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과학 기사나 과학 정보를 얻는 사람이 상당수이고, 신문이나 TV는 겨우 14%다. 그러니까 과학기자들은 과학을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할 것 같다. 과학기자가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건강은 어떤가? ▶▶ 머리 쪽의 혈관이 좁아져서 스텐트를 해 놓았다. 다른 불편한 곳은 아직 없다. 집이 산속에 있어 공기가 좋다. 물도 지하수를 쓸 정도다. (ST)